



도끼이지부

문예동 도끼이지부에서는 2007년 12월 21일 名古屋市青少年文化センター에서 문예동도끼이지부결성 20주년기념 제6차조선무용발표회 《향무2007》를, 2009년5월 22일 名古屋市青少年文化センター에서 문예동도끼이지부 무용부창작공연 《한마음》을 조직진행하였습니다. 2009년 8월30일 「第11回 にっぽんと眞ん中祭り」에 참가하여 조선무용의 우월성을 크게 과시하였습니다.

가나가와지부

문예동 가나가와지부에서는 2010년 2월 21일 《문예동맹원들의 모임》을 조직진행하였습니다. 제15차 총회를 앞두고 문예동지부의 조직건설과 활성화를 위한 계기점으로 하고 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의 마당, 단결의 마당으로 한다는 목적으로, 제1부 문예동중앙 김정수위원장의 강연 《민족문화는 우리의 재산입니다》를 진행하고 제2부 축하연에서는 상임위원들과 각부장들의 인사와 포부를 발표하였습니다.

2010년 4월 27일에는 무용부 조청반결성을 위한 제1차모임을 가져 조청반 책임자를 내오고 주 1번의 연습을 보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히로시마지부

문예동 히로시마지부는 년간을 통해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활동을 진행하여왔습니다.

2009년 7월에 진행된 문예동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성인조 은상, 청년조 3등을 수여받았습니다.

주에 1번 히로시마초급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용교실을 운영하며 주시고꾸구수지방의 초중급학생을 지명하여 《미래무용연구소》를 달에 1번 조직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또지부

문예동 교또지부에서는 지난 2009년 7월 20일에 현계광선 생님을 장사로 무용창작강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교또에서 5명, 오사까에서 2명, 효고에서 3명의 무용애호가들이 모여 강의와 실기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2010년 1월 17일에는 문예동교또지부결성 50주년 기념공연을 1,2부 안삼불공연으로 진행하였습니다. 500명을 넘는 동포들이 관람하였으며 너맹에서 8명, 조청에서 18명, 남동무 5명이 무용연목에 출연하였습니다.

효고지부

문예동 효고지부는 2009년 11월 23일에 문예동결성50돐을 경축하여 10여년만에 모든 부와 합동공연을 하였습니다. 특히 무용부는 해마다 진행되는 꽃놀이공연, 8.15대회공연, 데이씨-비스, 통일마당, 三田마당, ハリス마당의 대회사업 등 년간 약15번의 공연에 출연 하였습니다.

래년 2011년 5월 1일(일)에는 제5차 무용의 밤을 芦屋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각 지부 소식

니시도꼬지부

문예동 니시도꼬지부에서는 지난해 7월에 진행된 문예동무용경연대회에 지부를 대표하여 정진맹원이 참가하여 독무 가조부문에서 은상을 쟁취하였습니다.



오사까지부

문예동오사까지부 무용부는 경연 대회이후 맹원 한명한명이 자기 기술기량을 높이며 2009년 5월 2일에 6년만에 <제6차 조선무용의 밤>공연을 열리게 되었습니다.

100명가까운 출연자와 1000명가까운 관람자를 동원하는 아주 좋은 공연으로 되었습니다.



후쿠오까지부

문예동 후쿠오까지부 무용부는 지난 1년간 정상적인 활동을 벌리지 못하였으나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문예동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하여 조선무용을 기초로 한 코리안댄스<보람>소조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소조활동을 계기로 자기 지방특성에 맞게 어떻게 활동을 해나갈것인가를 토의하면서 문예동 활동을 정상화해나가겠습니다.



도꼬지부

문예동 도꼬무용부는 올해 11월 25일(목)에 제8차무용발표회를 처음으로 재일동포무용조곡이란 형식으로 재일동포녀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형상하기 위해 모든 맹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